박원자의 母情佛心 ❹ 동산 양개의 어머니



▶ 한줄 요약
회창폐불을 극복하고 선풍을 진작한 동산 양개 스님.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못난 자식을 너무 그리며 살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어미가 어찌 자식을 버리냐"고 그리워하며 "어미를 해탈시켜 불과를 이루게 하라"는 당부도 했다.

"어미가 어찌 자식을 버리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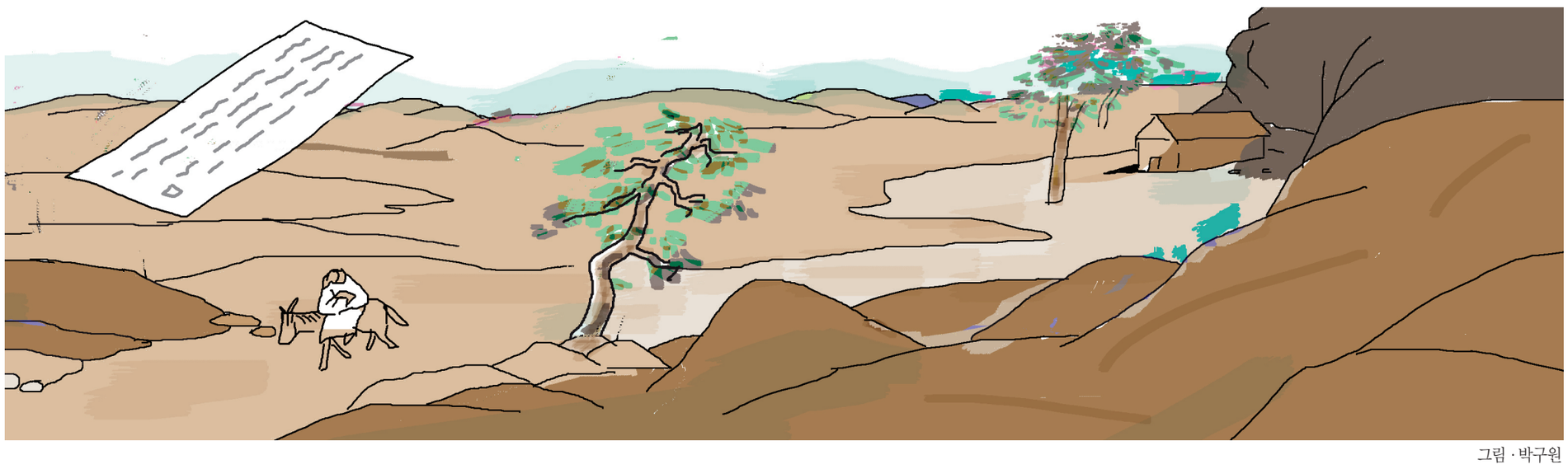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열일곱 살 먹은 사미승이 은사 스님 앞에 앉아 글을 배우다 말고 고개를 떨궜다. 책장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나이든 스승은 모르는 체 하고 계속 문장을 새겼다. 그런데 책장이 눈물로 점점 적셔지는가 싶더니 끝내 사미승은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하고 말았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파하자' 며 책장을 덮는 스승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다.

20여 년 전, 한 노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여든 일곱의 스님은 당시의 일을 또렷이 추억하며 다시 눈시울을 적셨다. 출가한지 칠십여 년이 흘렀건만 스님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가슴 아픈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사미승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스님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강원의 필수과목인 고승들의 글을 모은 책 〈치문(緇門)〉에 이 글이 실려 있는데, 스님들이 이 글을 배울 때면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 제자와 은사 스님 모두를 울렸던,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많은 출가자들의 눈물을 쏙 빼고 있는 글은 대체 무엇일까. 1200여 년 전 당나라 양개 선사가 출가해서 어머니에게 올린 편지가 그것이다. 양개 스님이 쓴 편지에 답장한 그의 어머니의 글 또한 명문으로 전해진다.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 스님은 중국 선종의 5가7종 가운데 하나인 조동종의 개조로, 임제 선사와 더불어 당말 최고의 선의 종장으로 꼽히는 고승이다. 양개 스님은 8살부터 글공부와 심부름을 하며 절에서 지냈는데, 10살쯤 되던 어느 날이다. 〈반야심경〉을 읽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점을 발견했다. 학식이 많은 주지 스님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면서 물었다.

"스님, 저한테 이렇게 눈과 귀도 있고 코와 혀, 몸과 생각이 다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어째서 없다고 하는 건지요?"

주지 스님은 어린 아이에게 선지가 있음을 알고 훌륭한 선사가 주석하고 있는 산으로 보내 머리를 깎게 했다.

많은 스님들을 울렸던 양개 스님의 편지는 양개 스님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고 절에 들어간 후 몇 년이 지나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엎드려 들으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에는 다 부모를 의지하여 태어나셨고 만물이 생긴 것도 다 천지의 덮어주고 실어줌을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양육하여 준 은혜를 입었으며 실어주고 덮어준 은덕을 받았습니다.(중략) 망극한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출가한 공덕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생사애착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해를 뛰어넘으며, 천생의 부모 은혜를 갚고, 만겁의 자비로운 어버이에 보답하며, 세 가지 세상과 네 가지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고 하였습니다.

불초 소자 양개는 금생의 신명을 버릴 때까지 결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영겁의 근진(根塵, 육근육진)으로 반야(般若)를 완전히 밝히려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저의 뜻을 들으시고, 이 못난 아들을 기꺼이 버리십시오. 조금도 애닯아하지 마시고, 저 정반왕을 배우시고 마야부인의 성후를 본받아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시고 오늘은 못난 이 자식과 이별하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불초 소자 양개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정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이 생에서 이 몸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구제하리'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어머니께서는 부디 이 자식을 다시는 생각지 마십시오.(중략)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고 나니 뜬세상 부질없이 우물쭈물 보냈음을 슬퍼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공문(空門, 불문)에서 도를 얻었거늘 저만 홀로 세상의 먼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가 편지를 올리며 깊은 사랑을 하직하고 큰 법을 밝혀서 어머니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눈물을 흘리며 자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 몸이 없던 것처럼 여기소서.

10대에 쓴 편지가 이렇듯 어른스럽고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 막 출가한 스님들이 읽으면 어느 날 문득 집을 떠나 불문에 든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할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출가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으리라.

양개 스님의 부모님은 예불하는 공덕을 쌓아 무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을 절로 보냈다. 신심이 깊은 분들이었으나 출가를 시킬 작정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들이 10살의 나이에 집을 떠난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머니의 그리움은 바다 속보다 더 깊었으리라. 아들의 이 절절한 편지를 받고 스님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여나 돌아올까 기다리던 마음을 접었을까?

〈치문〉에 수록된 양개의 편지
"이 못난 아들을 버리 십시오"
어머니 답장엔 그리움·당부가
"어미를 해탈시켜 佛果 이르게"

양개, 모친 편지에 수행 매진
회창폐불 극복하고 선풍 진작

바람결에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양개 스님에게 닿은 걸보면, 스님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들 스님은 다시 붓을 들었다. 두 번째 편지는 출가한지 10년쯤이 지난 다음에 쓴 것이다. 양개 스님이 20대 초반일 때다. 훗날 수천 명이 모여 공부하는 한 산문을 이끌며 선의 종장이 된 분답게 문장이 빼어나고 진실하다.

불초소자 양개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집을 떠나온 뒤로 남쪽으로 내려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바뀌어 집과는 어느새 만 리의 거리로 멀어졌습니다.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거두어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고, 뜻을 거두어 공(空)으로 돌아가 이별한 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에 기대어 동구 밖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중략) 대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닦고 효도를 행하여 천심에 합하고, 승려는 공문(空門)에 있으면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공부를 하여 부모의 은덕을 갚습니다. 지금은 천산만수가 가로놓여 모자간에 아득히 멀어진 (세간과 출세간) 두 길이 되었습니다. (중략) 부디, 이 아들을 죽은 자식, 없는 자식처럼 생각하소서.

여전히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지 말라는 아들의 절절한 편지를 받고 드디어 어머니가 붓을 들었다. 아들의 편지도 출중하지만,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였을까, 삶을 통찰한 어머니의 글 또한 천하의 명문이다.

나는 너와 전생 인연이 있었기에, 모자간의 깊은 정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너를 가진 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처님과 하늘에 빌었다. 임신하고 달이 차서는 내 목숨은 가는 실끈처럼 위태하였으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 너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너를 보석처럼 아끼어 똥오줌도 더러운 줄 몰랐고, 부지런히 젖을 먹였다. 네가 자라자 서당에 보내고는 글을 익히게 하였는데 혹 돌아올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리곤 했다.

이제 네 편지에서 이 어미도 출가의 긴요함을 알았구나. 그러나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어미는 늙었으며, 네 형도 살림이 어렵고 네 아우도 가난하구나. 그러하니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자식은 어미를 버릴지라도 어미는 차마 자식을 버릴 수가 없구나. 네가 머나먼 타방으로 떠난 뒤에는 밤낮으로 눈물만 뿌리었으니, 실로 서글프고 괴로웠다. 그러나 너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내 어찌 네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왕상이 얼음 속에서 고기를 낚고, 맹종이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여 오고, 정란이 나무로 부모의 모습을 조각한 효도를 너에게 바라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처럼 이 고해의 바다에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부디 이 어미를 해탈시켜 불과(佛果)에 오르게 하길 바라고 바랄 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집 떠난 너의 허물을 면치 못하리라. 잘 알아서 하길 간절히 바란다.

어머니의 이 편지 또한 출가자를 자식으로 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다. 네가 도를 이루어 이 어미를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집 떠난 네 허물을 면치 못하리라고 한 저 따끔한 경책은 출가자들에게 깊고도 깊은 발심의 회초리가 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마가 서 말 서 되의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여 자식을 키운다. 그래서 어머니의 뼈는 검고 가볍다고 한다. 어머니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천 번 만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고 전한다. 그러하기에 출가자들은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눈물을 떨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시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다. 이 편지를 받은 양개 스님은 그 후, 수만 여 사찰이 파괴되고 수십만의 승려가 환속해야 했던 회창폐불(會昌廢佛, 841~846)의 법난을 굳건히 이겨내며 수행에 매진해 스러져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수천 명이 공부하는 산중의 수장(방장)이 되어 후학들이 생사의 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포기한 양개 스님의 어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못내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큰 스님이 되어 나타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설이 있다.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로 믿고 싶다. 저 정도의 편지를 쓸 지혜롭고 대찬 어머니라면 자식이 도를 이루어 만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도하며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내 삶이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게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니까.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